

「농토」의 인물성격과 그 의미

—주인공 “억쇠”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 재 봉*

목 차

| | |
|------------------|----------------------|
| I. 서 론 | 2. 능동자로서의 억쇠— |
| II. 억쇠의 의식화(意識化) | 해방이후의 설득논리 |
| 과정과 설득논리 | III. 억쇠의 행위 양식과 그 의미 |
| 1. 수동자로서의 억쇠— | IV. 결 론 |
| 해방이전의 설득논리 | |

I. 서 론

「농토」는 상허 이태준(尙虛 李泰俊)이 월북한 뒤, 북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의 문제를 황해도 가재울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한 장편 소설이다. 해방기에서 남북한을 통털어 가장 절실한 현안 문제가 바로 토지개혁에 관한 것¹⁾이었고 당시 인구의 80% 이상을 농민이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 인제대학교 國語國文學科 助教

1) B. Cumings는 「한국전쟁의 기원」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치적 변화에의 욕구는 여러가지 형태의 새로운 조직의 탄생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요구들의 초점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 지배하의 소작제도에 얽매어 있는, 일본통치로부터 계승된 토지정세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1945년 한국정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격동의 시기에 있어서의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이며, 근원적인 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통치를 벗어날 당시 한국 사회의 주된 특성이었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일월서각, 1986) p. 14]

2 韓國文學論叢 第12輯

문학인들은 농민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좌파 문단의 경우 혁명의 헤게모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농민문학론’이 제기²⁾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농민문제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작에서는 그 성과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³⁾

이러한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장편을 찾아 보기 어려운 당시의 문학현실⁴⁾ 속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장편이라는 점에서 「농토」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다. 특히 이 작품은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이 작품은 상허의 이데올로기 지향과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즉 상허는 「해방전후」⁵⁾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이후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따르고 있다. 상허의 사회주의 이념은 소련을 여행하면서 더욱 경화(硬化)되었고⁶⁾ 이처럼 그의 이념적 색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농토」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역사는, 봉건 노예의 신분에서 지주 권생원의 소작인, 그리고 식민지 수탈의 첨병인 동양척식회사의 소작인으로, 마침내는 친일 앞

2) 농민문학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환, “조선농민문학의 기본방향” 「건설기의 조선문학」 (서울: 백양당 1946)

홍효민, “농심문학의 당면진로” 「개벽」 (1946.1)

박승국, “농민문화건설의 기본문제” 「협동」 (1947. 3)

김영석, “농촌문화에 대하여” 「협동」 (1947. 3)

오장환, “농촌문화에 대한 당면과제” 「개벽」 (1949. 3)

_____, “농민과 시” 「협동」 (1947. 3)

3) 한형구, “해방공간의 농민문학” (한국학보, 1988. 가을) p. 171

4) 당시에 장편은 거의 창작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연구도 단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오효일, “1940년대 후반기 단편소설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 1984)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석사학위논문, 서강대, 1985) 오현봉, “한국현대소설의 사회학적 연구”(박사학위논문, 경희대, 1986) 등과 신덕룡, 권영민등 대 부분의 연구가 단편에 집중되고 있다.

5) 이태준, “해방전후” 「문학」 창간호 (1946. 8)

6) 상허는 벽초와 함께 46년 초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월북 직후 소련을 여행한다. 그의 소련여행 체험은 “서울 文學家同盟 여러 벗님께” (「문학」 2호 1946. 11)라는 글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蘇聯紀行에서” (「문학」 3호 1947. 4)와 “붉은 廣場에서” (「문학」 3호 1947. 4)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상허는 소련을 더할 나위없는 지상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잡이인 도꾸지라는 인물의 머슴살이로 전락하는 인생역정을 겪는다. 억쇠의 계속되는 신분하락은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소외된 노동이란 자기가 노동해서 만들어낸 물건이 마치 낯설은 것처럼 느껴지고 마침내는 그의 빈곤을 증대시킬 뿐인 것⁷⁾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억쇠가 경험하는 하락과정은 혁명성을 극도로 잠재시키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폭발력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억쇠를 해방이후 토지개혁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성장시켜 나간다.⁸⁾

본고의 관심은 억쇠의 위와 같은 모습에 있다. 억쇠의 성격은 어떻게 변모되고 있으며 그를 변모시키는 소설적 장치는 무엇인가, 또 억쇠의 성격은 그의 행위양식을 어떻게 지배하며 그의 행위양식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 II장에서는 억쇠의 변모과정을 “설득”이라는 개념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설득”은 주변인물들이 억쇠를 혁명의 능동적 일꾼으로 만드는 유효한 수단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구성원리로도 작용한다. III장에서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개념을 원용하여 억쇠의 행위양식을 구명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억쇠의 의식화(意識化) 과정과 설득논리

1. 수동자로서의 억쇠 - 해방이전의 설득논리

1) ‘설득’의 개념과 지식인의 역할

‘억쇠’는 해방 이전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소작인을 거쳐 머슴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토지개혁의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활약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의식화(意識化) 과정’⁹⁾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이 과

7) D. 맥켈런, 「신오현 역, 「칼 마르크스의 사상」(서울: 민음사, 1982)」 p. 169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해방기 이태준 소설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학원, 1990. 8) pp. 28-42 참조.

9) “의식화”는, 의식의 영역을 넓히고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의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창조함’을 말한다. 그리고

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농토」가 지닌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이 당시 최고의 문제작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농토」가 지닌 특징은 당시 여러 작품에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가정도 성립할 듯 싶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역쇠의 의식화 과정을,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즉 그들이 어떻게 하여 역쇠를 혁명의 능동적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쇠는 점둥이나 점둥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땅이나 범물이 이렇게 골작 못하게 마련된 것은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못난데서 생긴, 고쳐야 할 탈인 줄은 미처생각지 못하는 것이요 또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 땅과 범물의 이런 마련은 태조 요순 때부터 내려오는 천륜(天倫) 같은 것이거나 앞으로 억만년을 가드라도 변할 것이 아니라니 오직 복종해야만 살며 복종해야만 사람의 도리러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엔 자고로 부귀빈천의 등별이 있는 것이며 이승에서 빈천한 자는 어서 죽어서 팔자를 고쳐 타고 낳는 수 밖에 없거나……, 불평이든 의분이든 이들은 고자 이런데서 머물거리다가 결을 새기고 마는 것이 예사였다.¹⁰⁾

이 인용문은 역쇠가 가재울로 쫓겨와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상전(윤판서)의 소작인인 점둥네의 타작마당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여기서 역쇠는 소작인의 비애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 불합리한 점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돌출된 화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화자는 이미 사회주의적 전망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역쇠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혁명의 전위에 서야 할 인물들에 대한 계몽의지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몽의지는 위 인용문에서처럼 화자가 직접 나설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동원되는 계몽의 방법이 곧 설득(說得)이며 이 설득은 작품을 끝까지 지탱시켜 나가는 원리로도 작용한다.

의식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은, '막연하게 관심을 가졌던 정치, 경제, 문화의 계몽제를 나의 일로 받아들여 미지근한 의심의 경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뜨거운 의식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황필호, 「이데올로기, 해방신학, 의식화 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5) p. 110 참조) 본고에서 의식은 물론 유물변증법에 한정된다.

10) 이태준, 「농토」 (서울: 삼성문화사, 1948) p. 37 다음부터는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은 원문에 따랐다.

특히 다른 어느 문학 전통이나 이론보다 특징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¹¹⁾의 경우 설득은 아주 요긴한 소설적 장치가 된다. 그러면 우선 설득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기로 하자.

단순하게 말하면 설득이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¹²⁾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문학의 측면에서는 프라이(N. Fry)가 대단히 유용한 입지점을 제공해 준다. 프라이에 의하면 모든 수사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장식적인 의미와 설득적인 의미가 그것인데, 전자는 문학 그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후자는 일종의 응용문학이며 문학예술의 힘을 이용해서 논쟁의 힘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장식적인 수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아름다움이나 기지를 찬미하게 하는 반면 설득적인 수사는 듣는 사람을 행동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즉 장식적 수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설득적 수사는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다.¹³⁾ 따라서 설득은 어떤 인물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감시하기도 하고 그에 알맞은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러한 설득은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화는 가장 직접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 설득하려는 사람은 설득되어야 할 인물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그들의 의식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작품들에서 지식인들이, 사건의 전개와 작품의 성격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2) 성필-현실문제의 인식과 집단적 대응논리

지식인의 이와 같은 역할은 「농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쇠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성필’도 이미 사회주의적 전망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 또한 소작인의 아들로서 역쇠 등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11)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역사적 낙관주의의 근거에서 진정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과, 대중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다.

C. V James,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서울: 녹진, 1990)] p. 35.

12) O. Lerbinger, [김규환·원우현 역, 「설득 커뮤니케이션」 (서울: 전예원, 1982)] p. 17.

13) N. Fry,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3, p. 245)

있다. 그럼에도 성필이 전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매개 역할에 머무는 것은 그가 지식인인 까닭에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부각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곧 그들의 역할은 역치와 같은 인물을 혁명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내가 또 입빠른 소릴 허우만, 쓰보가리라는게 공정헌것 같어두 작인 들만 좋겠습디다. 축이 나면 축이 낫지 늘린 절대루 없겠습디다.」

「어째?」

「논에선 벼가 마르기 전 아니요? 벼알마다 부피가 컸을건데 그걸루 왜보구 정헌것 아니요? 요즘 바짝 말른건 벼알이 우선 적어졌으니 말수가 줄것이구 또 젖었을 땐 벼알구실을 헌 반실짜리두 마당질에 와선 풍구질에 날러가버리지 않소? 어디 부피만 그러우? 무게도 벌써 얼마나 차이가 생길거요?」

성필은 이것만 일러주지 않았다. 작인들이 단단히 짜고 실지 소출된 것을 표준으로한 육활만을 소작료로 내게 된것도 성필이가 뒤에서 혼수한보람이었다. (pp.70-71)

이 부분에서 성필은 소작인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는 여기서 작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쓰보가리식 계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한편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일러 준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작인들이 기껏해야 순사가 자주 찾아오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성필의 말에 빠져드는 것은 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눈앞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흐찐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대화의 외적인 상황들, 즉 대화의 시간과 공간, 연술의 대상 혹은 주제, 발화자들이 맺는 관계 등¹⁴⁾을 원용하여 살펴 보면 이 부분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발화의 시간과 공간이다. 성필이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시점)은 소작인들이 쓰보가리식 계산법에 피해를 입기 직전 곧 쓰보가리식 계산법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소작인들이 대부분 마당질을 끝내고 노마네-역시 소작인-가 마당질한 결과는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 모여 있는 때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필의 등장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그는 소작인들이 동척의 농간에 휘말려 소작 계약을 할

14) 최현무, “미하일 바흐찐과 후기 구조주의” T. Todorow [최현무 역, 「바흐찐: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서울: 까치, 1988)] p. 270.

당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선택한 시간과 공간이 대부분의 소작인들이 추수를 끝낸,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네들의 집인 것이다.

둘째 연술의 대상, 곧 성필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작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동척의 요구대로 소작료를 물면 실제 소출의 7할 이상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소작인들은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억쇠는 동척 관리인 ‘가도-’를 찾아가 애초의 약속과 다르다며 따지기도 하지만, 육만 실컷 얻어 먹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성필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소작인 모두 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방법을 일러주고 소작인들은 성필의 말에 따라 동척에 대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의미 곧 성필과 소작인의 관계가 맺어진다. 즉 성필은 억쇠를 비롯한 소작인들의 마음 속에 힘없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성필은 작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척에서 땅을 미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억쇠가 성필에게 물어 보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 등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후 억쇠를 유물변증법적 세계관 즉 사회주의적 전망의 획득으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

3) 낯선 사회주의자-유물변증법의 주입과 투쟁논리

이와 같은 사건이 전제된 후 성필보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더욱 무장된 인물인 낯선 사회주의자가 등장한다. 그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소작인들에게 주입시킨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소작쟁의를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현실대응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 물론 여기에는 추수한 것 전부를 바쳐도 소작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과 아무리 남의 땅을 부쳐도 느는 것을 밋 밖에 없다는 소작인들의 뿌리깊은 비애가 밑받침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과 그에 따른 행동의 요구도 소작인들은 무리없이 받아 들인다.

앞으로는 돈이나 땅 임자의 세상으로 굳어버릴 수도 없이 그 자체가 병이

되어 력사는 어쩔 수 없이 변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인류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아지는 당연한 발전이라는 것(중략-필자) 노동자와 농민이 단결해 일어나야 그 발전이 빨리 된다는 것 그리고 기무라충신(같은 소작인 이면서 도-쵸 면장의 사주를 받아 소작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비국민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한 사람-필자)이처럼 뱀 빠진 것하지 말고 악하고 내 행 복을 짓밟는 놈은 털끝만치도 아첨은커녕 도리혀 털끝만치도 용서 없이 정 정당당하게 미워하고 총과 칼에라도 대항하고 싸워야…… (pp.98-99)

여기서 억쇠는 우선 편가르기에 대응되는 지주를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며, 「삶」이란 이렇듯 비장한 결심에서 맨주먹으로 총칼을 향해 나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볼줄 아는 눈이 이제 비로소 트이는 것 같은'(p.99) 마음이 된다. 물론 여기서의 소작쟁의는 누군가의 밀고로 모두 체포되어 억쇠가 소작쟁의를 모의하는데 가담했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쇠는 이러한 세계관을 점차 견고하게 만들어 가면서 해방 이후 토지개혁의 전위에 위치할 수 있는 자질을 닦아 나간다.

이상에서 처럼 해방 이전 억쇠에 대한 주변인물들의 설득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며 그것을 심화시키는 것은 억쇠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때의 설득은 억쇠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획득하여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억쇠가 담당해야 할 토지개혁의 전위 역할에 대한 예비적 단계인 셈이다.

2. 능동자로서의 억쇠-해방이후의 설득논리

해방이 되면 상황은 급속히 혁명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 따라서 억쇠에 대한 설득논리도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의 설득은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동시에 억쇠를 설득하는 목소리 또한 거리낌없이 나타난다.

「그놈(도꾸지-필자)의 집 떼뻗이 차지허우. 누가 반대허겠소.? 그러구 그집 농사두 땅은 인제 나라에서 결정허겠지만 부치는거야 떨어질 리 없을 제니 부즈런히 거두구 인젠 성가를 해 살 재빌 허슈」
「지급부터라도 그집 농살 거두기만 험 내가 추수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않구? 동무가 그렇게 자신 없이 굴면 안 되우. 집을 멀정하게 뺏기구, 이퇴씩 종사리를 허구, 어째 그런 놈의새길 철저히게 미워못허는 거요? 해방된 오늘두 그자들한테 쫓뻬져림 안되우. 인젠 우리들 자신이 싸워 이기며 살아야 허는 거요. 우리 혈 일이 인제 많소!」 (pp.136-137)

이 인용문은 해방이 되어 가재울로 돌아 온 억쇠가, 이제 막 출감한 성필을 찾아가서 나누는 대화이다. 여기서 성필은 억쇠더러 도꾸지의 집과 땅을 차지하라고 일러 주는 한편 그래도 될 지 망설이는 억쇠를, 질책 섞어 다독거리 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억쇠는 아직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육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성필은 그런 억쇠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 또한 성필은 억쇠에게 할 일이 많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억쇠가 할 일이란 다음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건 성필씨를 두구 생각해두 그렇진 않지요」

하고 불쑥 성필이의 대답을 앞질러 억쇠가 나섰다.

「성필이가 전에 만날 잡혀다닌게 일본사람허구만 아니라 지주들과 삼 허는라고 아니드랬나요? 그러니까 일본경찰이 없으졌으니 인제 농군들허구 지주허구 삼해봐요? 그래 백이나 천명이 지주 하나 못 해낼라구요?」

(중략-필자)

「그렇지만 이치에 다야 말이지」

「왜 이치에 안 다요? 일 많구 더 잘살구 일허구 더 못살구 그제 무슨 옳은 이친가요?」

「아 일 많구 편이 먹는 사람은 그리게 땅님자 아닌가요?」

「땅님자란요? 제 예비 하래비 악헌것 한것 물러가진 멀정한 물신선들 그렇지않음 가진 악헌것을 해 남의 피땀을 굶어 모흔 돈으로 산거지 착헌 재물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p.142)

이 대화는 소련군이 처음 가재울에 다녀간 뒤 소작인들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성필의 집에 몰려 와 이것 저것 물어보는 장면이다. 소작인들이 한꺼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던져 대자, 정확하게 분별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성필을 대신해 억쇠가 대답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새 억쇠가 다른 소작인을 설득하는 위치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억쇠의 몫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억쇠는 다른 소작인들을 선도하여 토지개혁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끔 유도하도록 그 몫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필이 소작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억쇠의 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가 된다. 위에서 억쇠가 성필을 대신해 소

작인들의 궁극증을 풀어 주는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애초 성필 등이 역쇠를 설득할 때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역쇠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이제부터 역쇠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필 등은 이제 역쇠의 보조역할 또는 후원자의 역할로 물러 앉게 된 것이다. 역쇠의 대답이 끝난 뒤 성필의, 2차대전의 성격—곧 소련이 전승국에 포함된 까닭에 가난한 민중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해방전쟁—설명과 소작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요지의 장황한 연설조의 연설에서 역쇠의 보조자로 물러나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곧바로 삼철계에 관한 소식이 들려 온다. 삼철계는 이전의 관념과는 달리 소작인이 7할을 차지하고 지주가 3할을 차지하는 분배방식이다. 이것이 해방 후 맞이하는 구체적인 첫 사건인데, 역쇠는 성필을 찾아가 그 정당성을 확인한다. 이 삼철계는 권생원 같은 지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두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쇠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한덩이귀이지처럼 고막을 굳게 막었던 봉건관념(封建觀念)’이 ‘그 은저리가 떠러져 버스럭’ (p.150) 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설득의 효과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고 이의 취지와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농민대회가 열리는 부분에 이르러서이다. 여기서 먼저 상정되어야 할 것이 해방 이전과는 달리 설득의 최고 정점에 김일성과 소련군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아래 인민위원회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¹⁵⁾

성필이 떠난 뒤¹⁶⁾ 역쇠는 여러 문제들에 의연히 대처해 나간다. 그러던 중 토지개혁법령을 맞게 되고 그 의의와 취지 및 원칙들은 농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농민대회가 개최된다. 우선 토지개혁 실행위원이 그 취지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설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구

15) 해방이후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이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농토」의 후반부는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작품의 이러한 모습을 ‘현실정치적 성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pp. 58-67 참조.

16) 성필은 도인민위원회로 가서 더 이상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역시 역쇠에 대한 시험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적이고 실제적인 안과부네 문제에 마주 섰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만다. 안과부는 딸 하나만 두고 남편이 죽자 여름엔 농사짓고 겨울엔 방물장수로 떠돌아 다니며 푼푼이 모은 돈으로 겨우 땅마지기나 장만하게 된 여인이다. 그런데 여인네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주로 행세한 적이 없을 뿐더러 소작료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후했다. 그렇지만 원칙대로라면 안과부는 어차피 지주였고 소작을 주었으니 토지는 물론 집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¹⁷⁾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과부를 옹호하고 나섰고 게다가 안과부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그 소작인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억쇠에게 지워진 또 한번의 과제이다. 억쇠는 농민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성필의 아버지 최초시에게서 원칙에 어긋나 잔사정에 이끌리는 것은 협잡과 통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맡고 나선다. 억쇠는 우선 안과부네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원칙과 상위(相繼)가 있는지를 물어 그렇다는 대답을 유도하고는 만약 사정을 봐 주었다가 법령이 인정하지 않는 날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전후후무한 이 토지개혁이 자연히 시시비비도 많겠지만 인민위원회의 훌륭한 분들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과부의 문제는 사실상 이것으로 마무리지어 버린다. 또 이 부분에서 억쇠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최초시는 문제의 해결을 시종 억쇠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억쇠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기만 한다.

이어서 토지개혁인데 왜 집까지 몰수하는냐는 권생원의 문제 제기는 이 작품에서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설득논리가 된다. 안과부의 문제가 토지개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면 권생원의 문제는 토지개혁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

17) 북한의 농민들이 대부분 소농지 소유자였다는 점(B. 커밍스, 앞의 책 p. 514)이나 1943년 당시 북한에서의 완전 자작농의 비율이 25%, 자작겸 소작농이 16.39%(유인호,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송인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p. 407 도표 참조)였다는 지적대로라면 「농토」의 안과부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문제의 처리야말로 당시 북한 토지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도 안과부네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회의장에서 권생원을 몰아내고 회의를 계속한다. 여기서 해방 직후 농민위원으로 재빠르게 변신한 친일 앞잡이 달운은 이미 권생원과 협잡을 하고 그를 비호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듣기 싫소. 달운이는 농민조합의 분회장ियो 지주조합의 분회장ियो?」

모두 낄낄 웃고 손뼉까지 쳤다. 역쇠는 말을 계속했다.

「권생원이 어째 이동네에 몇해가 안되는 사람ियो? 딱거머리 총각때부터 이동네서 서푼변 오푼변의 리자를 따 갔다는 사람ियो!」

「옳소!」

「또 어째 권생원네가 자주 재세가 한번두 없었던 말ियो? 지난 가을에두 지이보다 짐장을 먼저 했다가구 눈이 뿌여케 물린 사람이 저기 앉었소.

(중략-필자)

「그따위 구두쇠는 동네서 아주 하직을 시킵시다.!(pp.189-190)

여기서 우리는 권생원에게 향해진 직접적인 공격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역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설득은 곧 공격점과 규합점을 가지고 사회적인 적을 탄핵하는 수사법이다.¹⁸⁾ 여기서 공격점이란 권생원으로 대표되는 악덕 지주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역쇠와 같은 마음으로 규합되어 있다. 이 사실에서 토지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악덕 지주를 탄핵하는 것은 이미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쇠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설득논리는 권생원과 같은 악덕 지주를 몰아 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이데올로기의 기능 중 카타르시스¹⁹⁾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쇠는 완벽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농민위원 중에서 달운이 밀려 나고 역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몫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혁명의 능동적 일꾼으로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쇠는 해방 이전에는 주로 설득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해방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토지개혁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이상에

18) N. Fry, 앞의 책, p. 327 참조.

19) E. Carlton, 김동일 편, 「이데올로기」(서울: 청람, 1987) pp. 105-111.

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 시기 | 해 방 전 | | 해 방 후 | |
|-----------------|--------------------------|------------------------|---|-------------------------------|
| 설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fit-content;"> <김일성>-<소련군> ↓ <인민위원회> ↙ ↘ </div> | |
| 특 | <성 필> | <성필과 낯선 사회주의자> | <성 필> | <최초시와 실행위원> |
| 관 | ↓ | ↓ | ↓ | ↓ |
| 계 | <억 쇠> | <억 쇠> | <억 쇠> ↓ <소작인> | <억 쇠> ↓ <소작인> |
| 구체적인 사건 또는 설득내용 | 동양척식회사의 쓰보가리식 소작료계산법에 대응 | 소작쟁의 모의 및 유물변증법에 대한 설명 | 토지개혁의 정당성 및 삼척제 소작료 계산 | 토지개혁의 원리와 취지 및 안과부, 권생원의 처리문제 |

* □ 부분은 간접적인 설득관계임

III. '억쇠'의 행위양식과 그 의미

해방기 당시의 작품들, 특히 진보적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들은, 그들의 주장하는 혁명에 직접적인 무

20) 이러한 설득은 궁극적으로는 독자에게 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의 구실을 담당해야 했기에 그에 걸맞은 긍정적 인물의 창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²¹⁾ 앞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억쇠는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의식화 과정을 거쳐 혁명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이러한 억쇠의 행위양식을 알아보는 작업은 당시에 제기된 긍정적 주인공의 행위양식을 알아보는 것일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의 문학가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고유형을 검증하는 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① 억쇠도 그 이듬해부터는 장근이네나 점둥이네가 봄내 여름내 피땀을 흘리고 가을마당질에 와서는 남종은 일만 하고 물러나는 꼴에도 그것을 처음 볼 때처럼 마음에 찢리지는 않았다. 찢리지 않을뿐더러 나리남이나 아씨의 권리를 작인들 앞에 대신 써볼때는 권리를 주는 주인에게는 아침이 절로 늘었고 그 권리에 복종해야 하는 작인들에게는 모르는 새 거드름이 늘어 점둥이나 장근이네 마당에 가서는,
「별놈의 소리 다 들겠네…」 (p.37)

② (이를 갈자! 미워하자! 그때 그이는 나쁜 놈은 용서없이 미워하라! 했다! 아—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맘대루 꾸미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억쇠는 손에 잡히는대로 풀을 한우름 잡아 뜯었다.

(우리 같은 사람두 잘살게 만들거다! 그인 그때 그랬다. 십년 근고를 해서 북정밭 한때기 못 작만하는 건 원형리정이 아니라구. 이런 지금 세상은 마련이 잘못된 거라구. 마련 잘못된 이놈의 세상은 어서 뒤집혀야한다!) (p.119)

인용문 ①은 억쇠가 윤향서택의 노예로서 소작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억쇠는 지주, 소작관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지주의 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서서 주인에게서 아부하는 노예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억쇠는 아직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장만하려고 봐두었던 하루같이 밭을 도꾸지의 농간으로 그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기를 쓰고 일만하면 살게 되겠지’ (p.58) 하고 마음을 다잡을 뿐이다.

21) 예를 들어, 한효, “새로운 성격의 창조” 「적성」 창간호, (1946. 3) 정진석, “조선 문학론—홍길동전에 나타난 반항과 체험” 「민족문화」 2(1946. 10) 정진석, “영웅의 교체—국민적 영웅과 신비적 영웅” 「신조선」 4(1947. 2) 등이 긍정적 인물들요 구하는 당시의 평문들이다.

반면 인용문 ②에서의 역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역쇠는 보국대로 해주 비행장에 끌려가서 죽은 아버지의 유품이나 찾을까 하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때 역쇠는 이미 성필과 낯선 사회주의자를 만난 후이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서 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 곧 성필과 낯선 사회주의자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세상이 도래해야 함도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쇠의 강고한 신념을 만나게 된다. 역쇠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성필과 낯선 사회주의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기의 행복을 짓밟는 늪은 누구든지 이를 갈며 미워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모습은 곧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적과 동지의 편가르기에 대응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역쇠의 모든 행위는 역사적 낙관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역쇠의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역쇠는 어떠한 어려움에 마주서서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나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양식이 당시 요구되었던 긍정적 인물의 행위양식인 것이다.

역쇠의 이러한 행위양식을 설명하는 데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신념 윤리(Gesinnungsethik)’라는 개념²²⁾을 적용하면 편리하다.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종교에서 기인한 것이며 막스 베버가 자신의 주의주장을 관철하려는 정치인의 일반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도덕물이지만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22) H. H. 거드·C. W. 밀즈 “막스 베버의 생애와 업적” 및 D. H. 롱. “막스 베버 사회학의 기본성격” [이종수 편저, 「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서울:한길사, 1985)] p. 93 및 pp. 186-188 참조. 이하의 설명은 여기에 근거한다. 그리고 Gesinnungsethik은 심정윤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이 말이 gesinnung와 ethik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gesinnung은 심정, 신념, 지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신념으로 사용했다.

베버는 인간의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하나가 앞의 신념윤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적인 것이다. 책임윤리적 도덕률(morality)의 소유자는 자기의 주의주장이 역사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주의주장의 실천을 위해 목적합리적(Zweckrational)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반면 신념윤리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 목적의 추구(pursuit of absolute ends)'로 정의된다. 신념윤리적 도덕률의 신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선(最高善, summum bonum)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행동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억쇠는 신념윤리적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믿음을 굳혀 나가며, 따라서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 모습 등은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념윤리에 기초한 그의 행위는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도 서울처럼 돼서 도꾸진놈 부자가 빼앗이 나타나 일제때 권도 그대로 누깔을 부릅뜨고 집을 놔라 논밭을 내놔라 한다면?)

억쇠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나 이런 때마다,

(내 농구 물러서야지 별수있나!)

모다는

(싸우자! 목을 걸구 싸우자! 우리 뒤엔 얼마든지 큰 힘이 있다! 우리 농군이냐 노동자두 잘 살 수 있는 조선이 되도록 도와주는 나라두 있다! 성필씨 같은 사람두 하나만 아니다! 김일성장군 이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모두 우리 편이다! 아니 남조선에도 온통 우리 농민들이다. 또 거기 지도자들 중에도 우리 편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싸우자! 목을 걸고!) (pp.160-

161)

이 부분은 억쇠가 해방후 가재울에 돌아와 도꾸지의 집과 전답을 차지하고 난 뒤 곧바로 토지개혁이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는 도꾸지 같은 인물이 활개를 친다고 소문을 듣고 불안해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억쇠는 여기서 주저 앉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그들에 대하여 결전도 불사

하겠다는 전투 의욕을 다지고 있다.

신념윤리가 등장인물의 행위양식을 결정하는 예는 해방기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상허의 해방 후 첫 작품인 「해방전후」에서의 현(玄)의 행위도 신념윤리에 근거하고 있다. 해방 전 그토록 소심한 행위양상을 보이던 현이, 사회주의 이념의 선택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행위들은 바로 이 신념윤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전 절친하게 지냈던 우익측 친구들의 권유나 질책에도 굴하지 않는 이념적 자신감이라든지, 서울까지 그를 찾아 온 김직원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당당함과 김직원을 설득하려는 태도 등은 신념윤리적 행위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념윤리가 등장인물의 행위양식을 결정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²³⁾ 그러면 해방기에 이르러 이런 행위양식의 인물들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당시 문인들의 모랄의 문제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해방 이전에는 대다수의 문인들이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친일 행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해방 이후 심한 자책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유희분자들이 해방 이후에는 더욱 좌편향적으로 활동했었다는 신형기의 지적²⁴⁾은 여기서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방 이전의 행적에 대한 부끄러움을 상쇄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위와 같은 인물군을 창조해 내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숨 죽이고 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놓여나게 해 주

23) 박노갑의 「역사」 [「개벽」 복간호, (1946. 1)]의 주인공인 '만오'도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우연히 주먹질 몇 번 한 것으로 소작쟁의 가담자로 몰려 달포 가량 유치장 신세를 진다. 해방 후 그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의 여러 정당을 찾아 다니다 여의치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 청년들을 모아 놓고 농민의 역사를 짓자고 역설한다. 그리고 엄홍섭의 「발전」 [「문학비형」 (1946. 9)]의 주인공인 '순이'와 '영희' 형제도 정신대에 끌려 갔다가 귀국하는 배 안에서 담요 한장 얻어 덮은 청년의 말에 감화되어 완전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세계에 뽐내고 살겠다는 대단한 의식의 전환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신념윤리로 설명될 수 있다.

24)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서울: 화다, 1988) p. 52

었던 해방은, 그것이 미완성이었던 까닭에 더욱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러한 시대 성격은 필연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지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신념윤리적인 인물군을 창조해 내었던 것이다. 즉 일제 하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그러한 사회는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인은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당시의 문단 상황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일 순수문학의 대표적 인물로 활약했던 조연현까지 '프로 리얼리즘'²⁵⁾을 주장했던 당시의 현실이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좌파 문단은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긍정적 인물의 창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격동기에 처한 작가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태도'²⁶⁾라는 지적을 수용할 경우 긍정적 인물 창조의 요구는 작가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 견고함을 지닌 인물들의 창조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IV. 결 론

문학은 시대·사회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예술형식이다. 해방기의 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역사상의 특수한 시기가 지닌 의미가 해방기 문학에서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드물다. 일정기간 지속되었던 권력의 공백상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 여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해방기 문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며 남북분단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의 양상은 「농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농토」가 당

25) 조연현, "새로운 문학의 방향" 「예술부락」 창간호 (1946. 1)

26) 정과리·홍정신, "한국현대문학사" 1회 (문예중앙, 1988. 봄) p. 235.

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농토」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선 “설득”관계로 나타난다. 즉 끊임없이 유물변증법을 주입하고 이에 걸맞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설득관계는 해방이전과 그 이후가 구분될 수 있다. 해방이전의 설득관계는 “성필·낯선 사회주의자→억쇠”라는 수직관계로 도식화되며, 해방이후에는 억쇠가 능동자의 위치를 차지해 “김일성·소련군→인민위원회→최성필·최초시와 실행위원→억쇠→소작인”의 수직관계(김일성·소련군→인민위원회의 관계는 등장인물에게 직접적인 설득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로 도식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설득관계로 인해 주입된 이데올로기는 등장인물의 행위양식을 결정하고 지배한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떤 회의나 좌절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절대적인 종교와 같으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모든 사상이나 인물은 적으로 판가름된다. 이러한 행위양식은 막스 베버의 개념을 빌면 신념윤리(Gesinnungssethik)로 규정할 수 있다. 신념윤리적 도덕률의 소유자는 절대적 목적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선(最高善)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행동을 추구한다. 이러한 행위양식은 해방기 작품의 뚜렷한 특징을 이룬다.

해방기의 이러한 현상들은 당시 대다수의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친일 경력, 오랜 압제 끝에 찾아온 해방으로 인한 유토피아적 지향성,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당시의 문단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해방기의 보다 많은 작품들을 분석, 정리하고 다른 보조 학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작품의 의의와 한계를 구명하는 한편, 해방이전 KAPF문학과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일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해방기가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